# 단애(檀崖) 윤세복(尹世復)의 옥중시 산고

이승수*·이용근**·강동우***

**-차 례-**

1. 서언
2. 옥사 교우의 애도 한시 10수
3. 복당(福堂)의 서정, 시조 36수
4. 수정(守靜)과 치허(致虛), 노자와의 대화
5. 옥중시의 장소와 지리
6. 결어

* 주저자,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공동저자, 흑룡강대학교 한국어과 교수
*** 교신저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국문초록]**

이 글은 단애 윤세복(1881-1960)이 1943~4년에 지은 목단강 옥중시의 의의와 가치를 탐구하며, 한국학의 관점에서 이 시가 지닌 장소적 의미를 설명한다. 1942년, 윤세복은 대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검거되어 고문과 취조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10명이 옥사했다. 윤세복은 대종교를 통해 민족주의 독립운동을 추구하며, 여러 학교를 설립하고 활동하였다. 그의 옥중 작품들은 고통과 정치적 억압 속에서도 민족의식을 담고 있으며, 특히 죽은 동지들을 애도하는 시와 개인적인 고뇌를 표현하였다. 그 중 이 글에서 검토한 것은, 옥사한 교우를 애도한 칠언절구 한시 10수, 「복당서정(福堂抒情)」으로 묶인 시조 36수, 『도덕경』을 읽으며 고통을 달랜 마음을 담은 한시 5언 20운 「독로만음(讀老漫吟)」이다.

이 시들은 주권은 물론 인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훼손당한 한 인간의 수치와 고뇌, 일제 말 목단강 일대 민족운동 이면의 일상 국면들과 심리의 파동을 보여주며, 한국문학의 장소 또는 한국사 현장으로서 몇몇 암흑의 장소들을 조명해줄 것을 요구한다. 부당한 도덕 또는 불법의 법으로 강요된 신체의 구금과 문학의 관계라는 주제 차원에서도 흥미로운 작품들이다. 논의는 개별 작품의 분석보다는 창작의 배경과 내용의 고증에 주력하였으며, 옥중시의 장소와 지리를 고찰하였다. 단애가 체포되고, 수감되고, 절망하고, 재판받고, 시를 구상하고 적은 곳은 모두 한국학의 차원에서 문학의 장소이고 역사의 장소이다. 이 장소들을 답사함으로써 그 장소적 의미를 밝혔다.

**주제어 :** 윤세복, 대종교, 임오교변, 복당서정(福堂抒情), 독로만음(讀老漫吟), 액하감옥(掖河監獄)

# 1. 서언

이 글은 단애 윤세복(1881-1960)이 1943~4년에 지은 목단강 옥중시를 개관하여, 그 의의와 가치를 논하고, 나아가 한국학의 관점에서 몇몇 지점이 지니는 장소 의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42년 11월 19일(양 12. 26)[1] 일제는 윤세복과 안희제를 비롯한 대종교 지도자 25명을 일제히 검거하여 사건을 기안한 영안현(寧安縣) 경무과로 송치했다. 그중 4명은 즉시 석방되었고, 나머지 21명은 영안현 경무과에 설치된 특별취조본부에서 4개월 동안 혹독한 취조와 고문을 받았다. 이들은 1943년 3월말 목단강 경무처와 액하감옥(掖河監獄)으로 분산 이감된 뒤 3개월 동안 2차 취조를 받았다. 7월부터 9월까지는 목단강 고등검찰청에서 3차 취조를 받고, 이어 1944년 4월 27일 목단강 고등법원의 사실 심리 공판을 거쳐 6월 26일 판결을 받았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치안유지법 1, 2조였다. 그 과정에서 10명이 혹형을 이기지 못하고 옥사했다. 이를 임오교변이라고 한다. 임오교변은 두 달 전의 조선어학회사건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피해의 정도나 형량이 훨씬 더 컸다. 이는 일제가 대종교 조직 및 운동을 훨씬 위험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반증이다.[2]

당시 대종교의 최고 지도자는 윤세복이었다. 윤세복은 밀양 출신으로 1910년 12월 서울에서 나철을 만나, '단애(檀崖)', '세복(世復)'이라는 호와 이름을 받고 대종교에 입문하였다. 1911년 1월 서간도 담당 시교사(施敎師)로 임명되었고, 회인현(懷仁縣)에 동창학교를 설립 운영하였다. 이후 1946년 2월 환국하기까지 망명 생활을 하였다. 윤세복의

---

1) 대종교에서는 음력을 기준으로 날짜를 표시하기에 여기서도 대종교와 관련된 날짜는 음력을 기준으로 하였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해 양력을 병기하거나 명기하도록 한다.

2) 독립운동사의 차원에서 대종교의 활동, 임오교변의 배경과 정황, 그 의의에 대해서는 박영석, 「大倧敎의 民族意識과 抗日民族獨立運動 : 壬午敎變을 中心으로」, 『건대사학』 6, 건국대 사학회, 1982 ; 신운용, 「대종교세력의 형성과 그 의미」, 『한국민족운동사연구』8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5 ; 이숙화, 「1930년대 만주지역 大倧敎 재건과 민족운동」, 『고조선단군학』 37, 고조선단군학회, 2017 ; 정영훈, 「임오교변과 대종교」, 『국학연구』 26, 국학연구소, 2022 ; 이동언, 「임오교변 발단 배경과 일제의 탄압」, 『국학연구』 26, 국학연구소, 2022

망명 기간은 국권 상실의 시간과 일치한다. 그 사이 대종학원(大倧學院, 1936년 3월 10일, 동경성)에 이르기까지 20개 가까운 학교를 설립 운영했다. 1923년 김교헌에 이어 세 번째 도사교(都司敎)가 되어 대종교를 이끌다가, 대종교 총본사가 있던 동경성에서 검거된 것이다. (그는 일인(日人) 살해 혐의로 1915년부터 18개월 동안 중국 감옥에서 복역한 바 있다.) 1944년 6월 무기징역을 언도 받고 복역하던 중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해방 직전 1945년 양력 8월 12일에 풀려났다.[3)]

국권 상실기 윤세복의 삶은 '대종교를 통한 민족주의 독립운동'으로 간추릴 수 있다. 아래 동창학교 설립 취지에 대한 1914년 일제의 보고서, 1944년 4월 27일 윤세복 등 7인에 대한 공판 심리 내용은, 이 시기 윤세복의 심리 토대와 지향을 대변한다.

> 한민족의 선조는 백두산록에서 나와 중화민족과 대화민족은 그 가지에 불과한 까닭에 우리들은 노력하여 국권을 회복하여 夫餘民族과 부여국의 독립발전을 도모.[4)]

> 대종교는 조선 고유의 신도(神道) 중심으로 단군문화를 다시 발전하는 표방하에서 조선 민중에게 조선 정신을 배양하고 민족자결의 의식을 선전하는 교화단체이니만큼 조선독립이 그 최후목적이오. 따라서 반도와 만주를 탈취하여 배달국 재건의 음모를 가졌으니 이것이 어찌 종교를 가장한 정치운동이 아닌가.[5)]

윤세복은 북국의 겨울을 세 번이나 나면서 30여 개월 옥고를 치르는 가운데 몇 가지 글을 지었다. 그 중 이 글에서 검토할 것은, 옥사한 교우를 애도한 칠언절구 한시 10수, 「복당서정(福堂抒情)」으로 묶인 시조 36수, 『도덕경』을 읽으며 고통을 달랜 마음을 담은 한시 5언 20운 「독로만음(讀老漫吟)」이다.[6)] 이 시들은 주권은 물론 인권과 생명권을

---

3) 대종교 지도자 윤세복의 생애와 행적에 대해서는 박환, 『나철; 김교헌; 윤세복 : 민족을 발견하고 나라를 찾자』, 동아일보사, 1992 ; 서굉일, 「단애 윤세복과 독립운동」, 『경기사학』 7, 경기사학회, 2003 ; 조준희, 「단애 윤세복의 민족학교 설립 일고찰」, 『선도문화』 8,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2010 참조.

4) 조선총독부, 「國境地方視察復命書」, 『백산학보』 9, 1970

5) 대종교총본사, 『대종교중광육십년사』, 1971. 498면.

심각하게 훼손당한 한 인간의 수치와 고뇌, 일제 말 목단강 일대 민족운동 이면의 일상 국면들과 심리의 파동을 보여주며, 한국문학의 장소 또는 한국사 현장으로서 몇몇 암흑의 장소들을 조명해줄 것을 요구한다. 부당한 도덕 또는 불법의 법으로 강요된 신체의 구금과 문학의 관계라는 주제 차원에서도 흥미로운 작품들이다. 이 시들은 독립운동사 또는 윤세복(이하 단애로 호칭) 관련 논의에서 스치듯 언급되기는 했지만, 아직 전면 검토된 적은 없다.

논의는 개별 작품의 분석보다는, 창작의 배경과 내용의 고증에 주력할 것이다. 이는 이 시들이 고도의 예술적 완결성보다는 생활의 일상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서지와 주석 등의 1차 고증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논의가 은폐되어 있던 근대 한국문학사의 한 장면을 드러내고, 나아가 한국문학의 지리 영역을 조정하는 데 한 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2. 옥사 교우의 애도 한시 10수

임오교변으로 감옥에서 죽은 사람은 모두 10명인데, 이들을 대종교에서는 임오십현이라 한다. 『대종교중광육십년사』에 의거하여 십현의 행적의 대략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날짜는 모두 음력임)

| 직위 | 이름 | 생년 | 사일 | 피검 장소 | 서거 장소 | 안장지 | 기타 |
|---|---|---|---|---|---|---|---|
| 尙敎 | 權相益 | 1900 | 43.5.5 | 밀산<br>三梭通 | 적십자의원 | 三梭通 仲坪麓 | |
| 尙敎 | 李 楨 | 1895 | 43.7.30 | 영안<br>新安村 | 액하감옥 | 신안촌 寧家屯 | |
| 正敎 | 安熙濟 | 1885 | 43.8.3 | 의령<br>立山里 | 목단강<br>永濟醫院 | 의령군 立山 록 | 발해농장 |

6) 이 밖의 저술로 『세 한얼말』과 『修眞三法會通』이 있다. 전자는 『三一神誥』의 한글 번역인데, 9수의 '기림' 시조가 일종의 찬시로 부기되어 있다. 후자는 『삼일신고』의 세 가지 수행법 지감(止感)·조식(調息)·금촉(禁觸)에 대한 풀이로 한문 저술이다.

| | | | | | | | |
|---|---|---|---|---|---|---|---|
| 正教 | 羅正練 | 1882 | 43.8.18 | 영안<br>동경성 | 액하감옥 | 동경성 동문 밖 | 나철 장남 |
| 正教 | 金書鍾 | 1893 | 43.8.27 | 하얼빈<br>시내 | 액하감옥 | 함안군 漆原 | |
| 正教 | 姜銕求 | 1891 | 43.9.23 | 연길<br>銅佛寺村 | 연길 동불사<br>기슭 | 동불사 기슭(麓) | 교적 간행 |
| 司教 | 吳根泰 | 1882 | 44.1.5 | 영안<br>臥龍屯 | 柴河驛 | 시하역 기슭(麓) | |
| 正教 | 羅正紋 | 1891 | 44.1.7 | 영안<br>동경성 | 영안 동경성 | 목당강 상류 | 나철 차남 |
| 正教 | 李昌彦 | 1877 | 44.1.9 | 영안<br>舊街村 | 목단강 경무처 | 구가촌 卜家屯 | |
| 正教 | 李在囿 | 1878 | 45.2 | 길림<br>敦化縣 | 길림감옥(이감) | 함흥 선영 | |

종단 안에서의 직위를 나타내는 대종교의 교질(教秩)은 사교(司教)·정교(正教) 상교(尙教)로 나뉜다.[7] 순교(국)한 시점은 1943년 5월 5일에서 1945년 2월에 이르기까지 21개월에 걸쳐있다. 피검과 순교 당시 가장 젊은 사람은 권상익으로 43세와 44세에 불과했고, 최고령은 이창언으로 66세와 68세였다. 다섯 사람이 영안현에서 피검되었으며, 나철의 두 아들인 나정련·나정문 형제는 총본사가 있던 동경성에 있었다. 그 밖에 네 사람이 대종교의 주요 근거지였던 하얼빈, 밀산(密山) 연길에서 잡혔다. 발해진 일대에서 발해농장을 운영하며 수전을 개척하고 대종교를 후원하던 안희제만이 고향 의령 입산리에서 요양하다가 피검되어 영안으로 압송되었다. 9명이 목단강 감옥 안에서 죽었거나 죽기 직전 풀려났고, 이재유만이 길림감옥에서 삶을 마쳤다. 7명은 살았던 마을에 묻혔거나 화장되어 산골되었고, 세 사람의 유골만이 고향에 안장되었다.

단애는 비보를 접할 때마다 칠언절구 같은 형식으로 형제들을 애도하는 한시를 지었다. 한시를 선택한 이유는, 한글 시 짓기 훈련이 되지 않은 단애에게 있어 애도의 감정을 담기에는 한시가 더 친숙했기 때문

7) 교질에 따라 호칭도 달라진다. 단애는 추모시를 지으면서 각각의 이름 뒤에 다른 호칭을 붙였다. 대종교의 教號는 神兄(대종사에게 한정), 哲兄 (종사에게 한정), 道兄(도사교), 大兄(사교, 정교)로 나뉜다. (『補訂 倧門指南』, 12, 3면)

이며, 한국어 사용이 금지된 시절 그 편이 더 안전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물론 그만한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단애는 22살까지 한학을 익혔다. 이 시들은 당시 21명 중의 하나로 수감되어 있던 이용태의 차남 이영재가 사식으로 들인 도시락 덮개에 담겨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8] 10수의 시는 모두 2구와 3구가 뒤바뀌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아마 편집 과정에서 상하 2단으로 적힌 원고를 상단 가로 행부터 읽는 방식으로 처리했기에 생긴 문제로 보인다.

이 시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가까운 누군가의 죽음을 대상으로 하는 시의 경우, 내용에는 고인과의 관계 회고, 공덕의 평가와 찬탄, 애도와 추모의 감정 외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또한 형식에 있어서도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거나, 정교한 기법 속에 비밀을 숨기는 등의 작법은 시도되기 어렵다. 더구나 창작의 상황은 모국어 사용마저 금지된 국권 상실의 시기 민족을 표방했다는 이유로 옥중에 갇혀 동료들의 죽음 소식을 접한, 삼중 사중 상실의 시기였다. 10수 시의 요점을 간추리면 의기투합의 동지 의식과 관계, 미안하고 부끄럽고 슬픈 인간적 정회이다. 魔道와 다투었다는 구절도 두 차례나 나오는데, 이는 민족 또는 독립 운동의 투쟁성을 기린 것이다.[9] 본보기로 서너 편만 검토하기로 한다.

| | |
|---|---|
| 농사에 힘을 썼고 대종을 믿었으니 | 旣務於農且信悰 |
| 살아온 마흔 해에 중용을 얻었는데 | 行年四十得中庸 |
| 잡혀와 고초 겪음 그의 죄 아니로다 | 聊知縲紲非其罪 |
| 늙은이 무슨 맘에 늦춰 받지 않았던가 | 病堅何心不緩容 |

-「哭 權相益 棣[10]」

8) 조준희 선생에게서 청취한 것이다. 조준희 선생은 이 외에도 단애의 옥중 한시 및 관련 여러 귀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주었다. 이 글은 조준희 선생의 도움으로 입론될 수 있었음을 밝혀둔다.

9) 1919년 2월(양력) 만주에서 선포된 「대한독립선언서」에는 일본이 '적'과 '악마'로 규정되었다. 이 글의 작성자로 참여한 인물은 39명인데, 여기에는 김교헌과 윤세복을 비롯한 대종교인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10) 棣는 산앵두나무이다. 그 花瓣이 조밀하기 때문에 『시경』에서 형제의 정 또는 형제를 지칭하는 글자로 사용했다. 여기서는 仁棣의 줄임말로 '형제'를 뜻한다. 대종교단에서는 1911년 종령 3호로 "敎兄弟間, 公式書類, 末行署名下에 仁棣라

| | |
|---|---|
| 말세에 서로 만나 명분으로 사귀니 | 季世相逢友以名 |
| 서른 해 동지에다 오간 맘 넘쳤노라 | 卅年同志又多情 |
| 끝내 함께 갈 것을 그대는 아시리니 | 終歸一路君知矣 |
| 천궁에 가 호소하고 성심을 드리시라 | 往訴天宮也獻誠 |

-「哭 安白山 大兄」

위는 권상익[11]의 죽음을 애도한 시이다. 권상익은 40을 갓 넘긴 나이에 검거되었고, 검거된 지 4개월 조금 넘어 목숨을 잃었다. 상대적으로 젊었던 그에게 더 강도 높은 고문이 가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권상익의 죽음 소식에 단애는 몹시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했다. 권상익은 대종교를 신앙했던 순박하고 돈독한 장년의 농부일 뿐이었는데, 붙잡힌 지 얼마 안 되어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다. 단애는 그의 죽음이, 서둘러 그를 받아들여 지도자의 임무를 준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다. '병든 늙은이 病堅'는 시인의 자칭이다.

아래는 안희제의 죽음을 슬퍼한 시이다.[12] 윤세복과 안희제는 같은 시기 같은 지역(밀양과 의령)에서 태어나, 다르면서 같은 일생을 보냈다. 이들은 같은 신념과 의기를 공유한 동지였으며, 인간적으로 마음을 주고받는 친우였다.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운 시기에 태어나, 나라 없는 시대를 함께 견뎠다. 이들의 우정과 동지 의식은 개인의 이익이나 감정이 아닌, '겨레와 나라'라는 명분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두 사람의 이름은 1909년도에 결성된 대동청년단에 함께 올라 있다.[13] 동지로 보낸 세월이 30년이라 했으니, 둘의 우정과 의리가 이때부터 시작되었음

稱하고, 從前 施行하던 某座下及道座는 幷廢止케 함"이라고 반포하였다.

11) 함경도 성진부 태생이다. 유해는 密山현 三棱通 仲坪村(밀산시 남서쪽 23km, 興凱湖 서북쪽 22km, 穆棱河 남쪽) 기슭에 묻혔다. 1937년 2월 2일 동이도본사 밀산시교원에 임명되어 밀산 지역 포교를 담당했다. 피검지와 안장지도 밀산으로 확인된다.

12) 안희제의 생애, 발해농장의 운영, 대종교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가 있어 재론치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백산 안희제 선생 순국 70주년 추모위원회, 『백산 안희제의 생애와 민족운동』, 선인문화사, 2013 참조.

13) 대동청년단에 대해서는 강대민, 「白山 安熙濟의 大東靑年團運動」, 『경성대학교 논문집』, 1997, 71-86면 참조.

을 말한 것이다. 3구는 두 사람이 끝내 함께 할 것임을 말했다. 일로(一路)는 죽음 너머 천궁[14]에 가서 한배검, 곧 단군대황조(檀君大皇祖)를 섬기는 일을 의미한다. 그 안에 강렬한 민족의식이 담겨있음은 물론이다. 단애는 30년 동지 안희제의 죽음 소식에, 슬퍼하기보다는 의연하게 지난 세월을 돌이키며 앞날을 기약하였다.

| | |
|---|---|
| 한 집안 두 대 걸쳐 대종교를 독신하니 | 兩世一門篤信倧 |
| 부자의 은총 받음 범용한 일 아니어라 | 共被神愛寔非庸 |
| 어여뻐라 마도와 높이를 다툰 나날 | 可憐魔道爭高日 |
| 병마[15]는 무정커니 용납지 않는도다 | 二豎無情竟不容 |
| -「哭 姜海山 大兄」 | |

| | |
|---|---|
| 마도와 다퉈온 지 예닐곱 해라 | 魔道相爭六七春 |
| 의연히 옥중에 갇힌 몸 되었네 | 毅然堪作獄中人 |
| 우리 형의 기백을 뉘라서 가늠하리 | 吾兄氣魄誰能度 |
| 높은 나이 더 높아져 참으로 돌아갔네 | 添崇年餘乃返眞 |
| -「哭 李白香 大兄」 | |

위는 서울과 연락을 주고받고, 연길과 동경성을 오가며 교적 간행을 주도했던 강철구 추모시이다. 강철구의 부친은 나철과 행보를 함께 했으며, 나철 순교 뒤엔 남도본사를 이끌었던 호석(湖石) 강우(姜虞, 1862-1932)이다. 1, 2구에서는 그런 사실을 말하였다. 3구에서는 그의 삶을 '마도와 높이를 다툼'으로 요약했으니, 이는 그의 삶이 일제에 대한 투쟁과 운동으로 일관했음을 말한 것이다. 강철구는 이 전에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발행한 공채를 국내에서 처분하다가 붙잡혀 1923년부터 3년간 옥고를 겪은 바 있다. 강성의 투쟁을 이어온 이력은 한층

14)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천조(天祖)를 경배하는, 천조가 강림하는 교당(敎堂)의 명칭이고, 다른 하나는 천조가 머물고 있는 하늘의 장소이다. 여기서는 두 번째 뜻으로 쓰였다. '천궁'은 나정문(羅正紋) 애도시에도 쓰였는데 역시 같은 의미이다.

15) 二豎는 병마(病魔)의 별칭. 춘추 시대 진(晉)나라 경공(景公)의 꿈에 병마가 두 아이[二豎]의 모습으로 나타나 고황(膏肓) 사이에 숨는 바람에 끝내 병을 고칠 수 없었다. 『春秋左傳』 成公 10년.

가혹한 고문을 불렀고, 이름 마냥 쇳덩이 같던 그의 몸은 고문을 이겨내지 못했다. 단애는 강철구의 죽음 소식에도 의연함을 잃지 않았는데, 이는 대종교 지도자로서의 자존심의 표현이며 동맹 동지에 대한 예우였다.

이러한 태도는 아래 이창언(李昌彦)을 추도한 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단애는 그의 삶 또한 마도와의 투쟁으로 간추렸는데, 이는 그의 삶에 대한 강렬한 공명과 흠모의 표현이다. 다만 그 세월을 6, 7년이라 했으니, 이는 이창언이 대종교가 총본사를 동경성으로 이전한 1934년 이후에 대종교에 입문하였거나 적극적으로 활동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창언은 피검 당시는 66세의 고령이었으나, 이후 옥중에서 당당함을 잃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구에서는 그런 태도를 '의연(毅然)'으로, 3구에서는 그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측량할 수 없는 기백(氣魄)'으로 표현했다. '우리 형 吾兄'은 교단의 교호가 아니라, 실제 나이가 더 많았으며 기백도 늠름했던 선배 동지에 대한 친밀감 어린 존칭이다. 이 시를 풀어 말하면 이러하다. "그는 예닐곱 해 일제와 싸웠고, 66세 높은 나이에 구속되어 의연하게 감옥 생활을 견뎌냈으며, 높은 나이가 더 높아져 천조(天祖)에게로 돌아갔으니, 나는 그를 존경한다."[16]

나머지 6수의 시도 대략 이러한 기조를 지닌다. 단애는 권상익에게 몹시 미안한 마음과 후회를 담았을 뿐이다. 나머지 형제들의 죽음 소식에는 자신과의 관계와 당사자의 행적을 떠올려 압축했고, 종교(민족) 차원에서 그 의의와 가치를 의연하게 기술했으며, 때로는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표현했다. 숨고 드러나는 그 사이에 투쟁의 의지가 은미하게 보이기도 한다. 비애와 고통, 수모와 원억의 감정은 모두 그 아래 눌러두었다.

## 3. 복당(福堂)의 서정, 시조 36수

『대종교중광육십년사』에는 「복당서정(福堂抒情)」이라는 제목 아래

16) '반진(返眞)'은 죽음을 표현한 것이다. 대종교 문적에서 이 단어가 적용된 인물은 나철과 서일, 그리고 이창언 세 사람뿐이다.

36수의 시조가 실려 있다. 서언이 따로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단애는 ① 평생 시조를 구창하거나 지어본 적이 없으며 이는 조선인으로서 부끄러운 점이다, ② 시조 36수는 6편으로 나뉘어 있다, ③ 1944년 봄과 여름 사이에 지은 것이다, ④ 창작의 장소는 목단강 경무처(牧丹江 警務處) 유치장 누상서옥(樓上西屋)과 액하감옥(掖河監獄) 제일사(第一舍) 독삼방(獨三房)이다, ⑤ 음악이나 문학의 예술 기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정실(情實)만을 담았다, ⑥ 함께 고생하는 첨체(僉棣)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는 창작 동기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17] 이를 통해 당시 단애의 시조 인식, 창작의 시간과 장소, 의도를 알 수 있다.

먼저 따져볼 것은 시조 선택의 배경이다. 단애는 왜 한 번도 체험하지 않은 시조를 선택했을까? 이는 아무래도 작게는 1920년대 중반에 대두된 시조부흥론, 크게는 193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전통론의 영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25년 카프(KAPF)의 결성으로 프로문학의 세력이 확장되자, 이에 맞서 최남선과 이광수 등은 국민문학론을 내세웠다. 국민문학론의 핵심이 시조부흥론이다. 시조부흥론은 1930년대 초 이병기와 이은상의 이론과 창작으로 결실을 거둔다. 1930년대 후반에는 국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통론이 제고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1939년 『문장』의 창간으로 이어졌다.[18] 단애의 시조에 대한 관심과 창작 시도는 이런 흐름을 배경으로 한다. 36수의 형식에서 주목할 것은 3·5·4·3으로 어김없이 지켜진 3장의 자수율(字數律)인데, 이 또한 시조부흥운동과 전통론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19]

---

17) 서언이 쓰인 시점은 '甲申(開天 4401년)년 端午 後 3일'로 명기되었는데, 이를 서기 양력으로 환산하면 1944년 6월 28일이다. 단애는 자신의 이름을 '한다물'로 적었다. '한다물'은 '世復'을 고유어로 표기한 것이다. '다물'은 고토 회복을 의미하는 고구려어이다.

18) 여기에 대해서는 우은진, 「1930년대 '전통' 인식과 시조담론」, 『한국문학논총』 63, 한국문학회, 2013, 201-235면 참조.

19) 특히 시조부흥운동의 주도자였던 최남선은 단애 윤세복과의 인연과 친분이 각별하였다. 최남선은 일찍이 대종교 주요 인사들과 교류가 잦았고, 1937년에는 대종교총본사(동경성)를 직접 방문해 단애를 만나기도 하였다. 또한 그의 저서 『송막연운록』에 「단애선생」 항목을 따로 둘 정도로 윤세복에 대해 각별하였다. 단애의 시조에 대한 관심과 창작은 최남선과의 친분에서 그 상관성을 고려해볼 수

이 시조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복당서정」은 ‘대종교의 유래’ 4장, ‘감중자술(坎中自述)’ 8장, ‘운명신(運命神)의 마술(魔術)’ 6장, ‘공판개정(公判開庭)’ 4장, ‘후반생을 회고’ 8장, ‘최후감상(最後感想)’ 6장 여섯 단위로 나뉘어 묶여있다. 30개월에 걸친 긴 취조와 심리 끝에 공판 날이 다가왔다. 대동아전쟁 막바지 일제의 군국주의는 강경 일로로 치달았고, 치안유지법이 적용된 단애로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단의 정회가 일어났고, 복잡미묘하게 얽혀있는 마음을 어떻게든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단애는 지나온 삶을(삶의) 여정을 하나하나 되짚었고, 이를 간추려 시조 형식에 담았다. 한국어에서 자연스럽게 탄생한 시조 율격은 어렵지 않았고, 단애도 표현 기교에 신경을 쓰지 않고 일상어를 구사하듯 한 구 당 네 글자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3장 12음보의 시조를 지었다.

‘제1편 대종교의 유래’ 4장은 차례로 대종교의 교리와 교의, 역사와 중광, 사명을 주제로 삼았다. 2년이 넘는 심리 기간 단애는 온갖 회유와 협박은 물론 견디기 어려운 모욕과 고문을 받았을 터이고, 자신의 마음이 약화되고 의지가 무너지는 것이 가장 두려웠을 것이다. 일제의 관리들에게 비치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태도가 미칠 영향 등도 생각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추하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었다. 이에 민족을 앞세운 종교의 최고 지도자로서 자신의 본분과 책무를 먼저 생각했고, 이를 통해 의지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 대종교의 사명을 맨 앞에 두었던 것이다.

삼신일체(三神一體) 상제(上帝)로서[20] 동방 구족(九族) 교화하니[21]

---

도 있겠다. 최남선과 대종교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동환, 「육당 최남선과 대종교」, 『국학연구』 10, 2005 참고.

20) “神位 信仰 本神은 三神一體 上帝시라 천상에 계서서는 桓因 · 桓雄 · 桓儉(한님 · 한웅 · 한검. 곧 造化 · 敎化 · 治化)의 三神이신 大主宰이시오 인간에 계서서는 父 · 師 · 君의 三宗이신 大皇神이시다.” (『補訂 倧門指南』, 1942, 2면)

21) 태초에 那般(남)과 阿曼(여)이 있었고, 둘의 자손이 갈리 黃族 · 白族 · 玄族 · 赤族 · 藍族이 되었다. 오랜 세월이 아홉 부족으로 나뉘어 다툼을 일삼았다. 이에 갑자년 10월 3일 하느님(神)이 천부인을 가지고 태백산 단목 아래 내려와 세상을 교화했다. 무진년 10월 3일 아홉 부족이 추대하여 임금을 삼았다. (『神事記』(조준희 · 유영인 편, 『대종교원전자료집 백봉전집』, 역사공간, 2017, 200-214

삼진귀일(三眞歸一)[22] 그 교리와 홍제인세(弘濟人世) 그 교의는
거룩한 고조선기(古朝鮮紀)에 단군 문화 자랑해

‘대종교의 유래’ 4장뿐 아니라 36장 전체의 서장으로, 대종교의 경전과 교사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대종교에서 섬기는 바 하늘에 있는 신을 내세웠고, 다음으로 먼 고대 지상에서의 교화를 말했다. 다음에는 교리와 교의를 말했고, 대종교의 역사 근거를 말하며 시상을 거두었다. 시선은 밖의 멀고 높은 존재로 향했고, 마음은 신앙과 경모로 가득하니, 미감의 기조는 거룩함 즉 숭고이다. 시상을 갈고 다듬거나 표현을 반복해서 매만진 흔적이 없는, 그야말로 소박한 시조이다. 하지만 조선 민족의 독립운동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앞둔 처지에서, 그 민족운동의 중핵인 대종교의 교리와 교사를 문면에 드러낸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했던 행위로 추정된다.

제2편「감중자술」8장에서는 거룩한 존재로 향했던 시선을 거두어 옥중의 초라한 자신으로 향하게 했다. 1, 2장에서는 나철과 김교헌의 부탁을 받고도 교문을 지키지 못한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다며 자책했다.[23] 이러한 자책감의 정도는 자결하여 민족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속죄하려 했던 나철과 서일, 같은 이유로 병을 얻어 일찍 죽은 김교헌과 견주어야 가늠할 수 있다. 3, 4장에서는 경찰서와 감옥을 오가며 백열 번의 취조를 받았으며, 동료들이 죽어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초라한 처지와 무력감을 토로했다.[24] 5장에서는 빈약한 식사와 혹독한 추

---

면.) “태고 때 黃 白 玄 赤 藍 陽 干 方 畎 九族이 동방에서 始起하야 점차로 세계 종족을 이루었나니 그 宗系는 고조선 때에 다시 夫餘 · 肅愼 · 沃沮 · 濊 · 貊 · 韓의 六派로 난우었다.” (『補訂 倧門指南』, 3면)

22) “大敎의 倧理는 곧 三眞歸一이니 다시 풀어보면 人物이 처음 날 때에 반드시 한 얼(天神)께 받든 性 , 命, 精 三眞이 잇고 그 나흔 뒤에 제아금 가지는 心, 氣, 身 三妄이 잇는데 止感과 調息과 禁觸의 三法으로써 返妄卽眞하고 化衆成哲하야 一神(天神)에 귀의하는 것을 三眞歸一이라 한다.” (「大倧敎總本司建築發起會佈明書」, 1934)

23) “崇奉神道 삼십 년에 교리 闡明 못 하였고, 猥受師託 이십 년에 교문조차 못 지켰네. 게다가 神國民으로 神倧報國 빈말뿐.” (1) ; “이 세 가지 큰 죄 짓고 무슨 염치 백발인가, 한우님은 성내시고 사람마다 미워하네. 광대한 천지간에도 둘 곳 없는 이 몸을.” (2)

24) “俗吏에게 손을 빌어 檢擧되고 구속하니, 寧安 거쳐 牧丹江에 유치장의 囚徒일

위로 앙상해진 신체를 그렸고, 6장에는 자기가 죽으면 화장하여 유골을 목단강에 뿌려달라는 유언을 담았다.[25] 이 무렵 단애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두 장에서는, 혹시 살아 나간다면 죽어 백두산 기슭에 묻혔다가 천진전의 기와 받침이 될 것이며, 민족과 종교를 위해 죽어도 한 될 것이 없다는 결연하고 초연한 심정을 표현했다.

> 또 만일 출옥되면 갈 곳이 어디메뇨?
> 아 백두산 지슬기에 한 줌 흙이 되었다가
> 천진전(天眞殿)[26] 신건축할 제 개와바침 하오리
>
> 뭇을 위해 살았다면 그 아니 복일른가
> 교(敎)를 위해 죽는다면 그 아니 영광일까
> 제 한 몸 돌아볼 적에 아무 근심 없어라

제3편 여섯 장의 제목은 '운명신의 마술'이다. 운명이란 회피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예정된 힘의 작용을 뜻한다.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현상과 결과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단애는 대재난에 처한 민족, 이를 구제하려다 일신에 닥친 환난을 '운명신의 마술'이라 하고, 여기에 응전하는 의지와 자세를 다짐했다. 동서고금에 걸쳐 인도와 정의를 실천하는 경우에는 운명신의 장난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백절불굴의 정신과 죽음을 두려워 않는 기백은 어떤 마술도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 또 일신의 행복에 이끌리지 않고 화난의 위협에 굽히지 않는 대장부 앞

---

세. 聽取書 일천삼백 장 전후 取調 백열 번." (3) ; "한 사람의 죄악으로 연루자가 스물인데, 아홉 사람 병에 죽고 다섯 사람 놓아갔다. 지금껏 일 년 삼 개월 법원 기소 못 정해." (4)

25) "하루 두 끼 粥 두 碗씩 뼈가죽이 서로 붙고, 雪窓 氷板 三冬 내니 새우잠에 허리 굽어. 체력이 不及하므로 법정 공판 못 볼 듯." (5) ; "이 몸이 옥사한 뒤 유해를 出送커든, 원컨대 동지들아 그 당시 화장하야, 목단강 흐르는 물에 남은 재를 던져주." (6)

26) 대종교는 1934년 6월 16일 동경성으로 총본사를 옮긴 뒤 발해 상경성 터에 천진전을 건축하려고 했다. 천진전은 "한배 檀君의 御眞을 奉安한 處이니 교인은 殿內에 入하야 敬肅하게 瞻謁할지니라." (『大倧敎弘範』, 1942년 동경성, 1면)

에서는 운명신도 부복(俯伏)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자기 할 도리만 다하면 한배검의 도우심을 얻으리라며, 곤경에 처한 조선인들을 위로하려 했다.[27]

제4편 '공판개정' 네 수에는 재판 과정의 대략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단애 포함 일곱 사람은 4월 27일 기소장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관선인지 민선인지 불분명한 변호사는 형식으로 한 명만이 참가했고, 방청석에는 스무 명도 못 되는 가족과 친우들이 자리했다. 엿새 동안의 사실 심리 끝에 5월 13일 무기형에서 5년형까지 판결을 받았는데, 적용된 죄목은 '치안유지법'[28] 제1조였다. 죄목과 형량은 대종교가 강성 독립운동단체였다는 사실의 반증이며, 지도자들에게 가혹한 고문과 형벌이 가해진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7명에게는 6월 26일 구형 그대로 판결이 내려졌으니, 재판과 변론은 요식 행위였을 뿐이다. 이로부터 단애는 기약 없는 수감 생활을 다시 시작했고, 그 와중에서 이재유는 1945년 2월 목숨을 잃는다.

제5편 '후반생을 회고' 여덟 장은 말 그대로 나철을 만난 1910년 12월(30살)부터 당시까지의 삶에 대한 자전이자 대종교의 간사(簡史)이다. 부패한 조선말에 태어나 망국의 한을 품었는데, 다행히 대종사를 만나 가치 있게 살 수 있었다는 내용의 제1장은 작은 서장(序章)이다. 이후 남만의 시교사로 출장하여 1911년 환인현에 동창학교를 세웠고, 길림 무송(茂松)에서는 백산학교를 운영하다가 일인(日人) 살해 혐의로 18개월 옥고를 치렀다. 1919년 만주에서 삼월 만세운동에 크게 고무 감동하였으며, 1924년에는 대종교 도사교의 자리에 나아가 종단의 규칙을 정리하였다. 1926년 시교를 금지당한 뒤 갖은 노력으로 시교 허가를 받아냈지만 만주사변(1931)으로 효력이 사라졌고, 1934년 하

27) "동서고금 명현달사 인도 정의 실천할 제, 백절불굴 그 정신과 視死如鬼 그 기백은, 아무런 魔術이라도 이기고야 마나니." (3) ; "행복으로 유인한들 처음 뜻을 고치겠나, 화난으로 위협한들 곧은 절개 굽힐소냐. 늠름한 대장부 앞에 運命神도 절하지." (4) ; "운명신만 원망 말고 정욕 버린 사람 되며, 명현달사 부뤄 말고 제 할 책임 다하여라. 그러면 우리 한배검 도우심을 얻으리." (5)

28) 1923년 9월 관동대지진 직후 만들어진 법안으로 처음에는 사회주의를 겨냥했지만, 이후 일체의 모든 독립운동에 적용하였다. 당시 대종교 지도자에 적용된 치안유지법에 대해서는 장세윤, 「1942년 일제의 대종교 탄압과 치안유지법」, 『국학연구』 26, 국학연구소, 2022 참조.

얼빈에 선도회를 열고 총본사를 동경성으로 옮겼다. 학교(대종학원)를 세우고 경전과 교보를 발간하였으며 천진전 건축을 준비하다가 1942년 12월 26일 검속되었다.[29]

제6장 '최후감상' 여섯 장은 최후진술이며 후인에 대한 당부를 담은 일종의 유서이다. 첫째 장은 '한배검에 대한 정성스러운 기도'이다. 아울러 현실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상을 실현할 수 없으니 당대의 신질서가 속히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셋째 장은, 당국의 판결에 명쾌하게 승복하여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내용인데, 이는 대동아전쟁 시기 단결에 방해될 것에 대한 우려이다. 여기에는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고심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일제의 허가를 얻어 제도권 안에서의 종교 활동을 지향했던 이전의 행적과 더불어, 오랜 수감 및 취조를 거치며 일제에 다소 유화적이고 순응적인 현실주의의 면모로, 관점에 따라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단애는 도사교를 맡으면서 얼마간 현실주의자로 변모해갔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셋째 장 전문이다.

> 셋째로 법원 당국 신심(愼審) 명결(明決) 탄복(歎服)할 것
> 동아전쟁 발흥(勃興)한 때 대동단결 방해될까
> 그러나 만난(萬難) 시국(時局) 하 사건 확대 않도록

나머지는 모두 대종교에 대한 자부심과 대종교의 역할에 대한 당부이다. 둘째 장에는 빨리 다음 지도자가 정해져 전세계 호소할 곳 없는 대중들에게 포교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넷째 장에서는 교리와 교의에 얽매이지 말고 오로지 단군을 숭배하며 어떤 고문이나 형벌이 있어도 서로 원망하지 말자는 마음을 담았다. 다섯째 장에서는, 순교자 모두는 조선문화를 사랑해서 당한 일이며, 그 죽음은 인류의 장래 행복을 위한 희생이라며, 유족들을 위로하는 뜻을 표현했다. 여섯째 장에는, 임오교

29) 두 장만 소개한다. "조선 사회 부패한데 微賤家의 生長으로, 부득의한 무식 청년 망국한을 품었으니, 대종사 못 만났더면 후반생은 失眞者." (1) ; "기미 삼월 만세운동 전 만주에 파급하니, 삼십삼인 선언서를 뉘가 감탄 아니 할까. 興業團 조직한 것은 그 지방을 지킬 뿐." 흥업단은 1919년 무송에서 단애가 주도하여 결성한 바 산업을 표방한 독립운동 단체이다.

변 그 자체를 '대종교의 치욕'으로 간주하고, 그 잘못이 자기에게 있다고 시인했다. 이는 공식 인가 하에 포교하는 상황 속에서 종단의 내부 사정이 훤히 드러났고, 이것이 일망타진되는 결과로 나타난 것에 대한 회한과 자책으로 읽힌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이 고신도 재발전에 어떤 의의가 있을 것이라며, 고신도 쇄신과 부활의 희망과 의지를 놓지 않았다.[30]

극히 일부 일제에 유화적인 태도가 비치긴 하지만,「복당서정」36수는 대체로 조선 민족과 대종교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내용과는 별개로 한글을 사용하여 고유의 정형시 형식을 시도한 것은 그 자체로 행위이며 주제라 할 수 있다. 이 시조들이 실제 몰래 지어지고 비밀리에 반출된 것이라면, 이 행위는 심각한 위험을 감수한 저항의 의미를 지닌다. 전통주의 문학을 표방한『문장』도 1941년 4월 강제 폐간된다. 1944년은 학교에서도 조선어 사용이 금지되어, 일부의 문인은 붓을 꺾은 채 숨죽이고, 대다수의 문인들이 친일을 노래하던 대동아전쟁 말기이다. 단애의 시조는 이 엄동의 시기 북만주의 옥중에서, 그것도 '치안유지법' 위반의 죄목을 쓴 채 지어졌다. 이는 작품들의 형식미학적 성취와는 별개로 문학사의 심중한 의의를 지닌다.

## 4. 수정(守靜)과 치허(致虛), 노자와의 대화

『대종교중광육십년사』에는 단애의 20운 5언 한시「독로만음(讀老漫吟)」이 실려 있다.『도덕경』독후감을 시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40구 중 30구 이상을『도덕경』의 말을 빌어왔다. '갑신(甲申) 춘(春)'으로 창작시기가 명기되어 있으니,「복당서정」과 같은 시기에 지어진 것이다. 왜 단애는 그 혹독한 상황에서『도덕경』을 떠올렸고, 이 책을 읽었을까? 그가 읽은『도덕경』은 어디서 나온 어떤 형태의 책이었을까?[31]

---

30) "여섯째로 바라는바 천하 후세 공론으로, 대종교의 당한 치욕 윤세복의 죄안이나, 古神道 재발전함에 무의미는 아니다." (6)

31)『도덕경』은 20세기 이후 새로 발견된 이본이 많다. 당시 단애가 읽은『도덕경』이 어떤 본인지는 전승과 유통의 과정을 면밀히 따져야 추정이 가능할 터이다.

누구의 해석본이었을까? 왜 시를 지을 생각을 했으며, 어떤 종이에 어떤 붓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필체로 시를 적었을까? 한달음에 이 긴 시를 다 짓지 못했을 것이다. 며칠이나 걸렸을까? 간수들의 눈을 피해 이 긴 시를 짓고 유출하는 게 가능했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이 의문들을 한 번에 푸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절에서는 몇 가지만 추론하여 의문의 몇 가지를 줄여보고자 한다. 첫째, 공판 무렵 옥중에는 일정한 정도의 서적 및 필기구 반입이 허용되었을 것이다. 이는 제한적으로 글쓰기가 묵인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반입되는 서적은 당대의 사상이나 사회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제한되었을 것이다. 해석 여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도덕경』은 정치와 거리가 먼 책으로 인식되어 왔다. 셋째, 한시를 선택한 이유로는, 『도덕경』 자체가 매우 함축적인 구절들로 이루어져 있고 일정한 운율을 지니고 있어 한시로 변환하기에 쉬운 반면 한글로 옮기기에 용이치 않다. 넷째, 한시는 은미하며 다중적인 뜻을 담기에 더 유용하며, 혹시 있을지 모를 검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왜 하필 『도덕경』인가? 이 질문도 중요하다.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후술하겠지만, 『도덕경』은 젊은 시절부터 애독했던 책이기 때문이다. 단애는 절대 결손과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어둠은 어둠에 의해서만 이해되고, 슬픔은 더 큰 슬픔에 의해서만 위로될 수 있다. 결손과 절망도 다르지 않다. 『도덕경』은 통상의 기준에서 마이너스 상태들에 높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 『도덕경』에서 가장 많이 쓰인 글자는 '不'(246회), '無'(101회), '莫 '(20회), '非'(11회) 등의 부정사이다. 이는 주로 소극 행위나 상태–불위, 불언, 무위, 무지–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보다 물러나거나 되돌아가는 행위와 작용을 중시한다. 채움 · 위 · 성숙(어른)보다 비움 · 아래 · 미숙(아이)의 상태를 긍정한다. 『도덕경』은 단애의 패배감 · 자책감 · 수모감을 덜어주고, 낮은 데서 심리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도덕경』의 어떤 말들이 단애를 위로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었을까?

---

논자의 능력 범위 밖의 일이므로 이후 전문가의 고구를 기다린다.

반대로 용기와 희망을 버려 마음을 비우고 체념하게 했을까? 단애는 한 편의 시에 무슨 마음을 담고 어떤 뜻을 숨겨놓았을까? 시의 특성상 이를 명징한 논리와 명제로 이끌어내기는 불가능하다. 시의 전체 구도를 설명하고, 몇 구절을 떼 내어 해석을 시도하겠다.[32] 먼저 살펴볼 것은 1, 2구와 39, 40구이다. 네 구는 시상을 일으키고 거두는 기능을 하며, 모든 내용을 감싸는 집의 역할도 하니, 시인의 마음 윤곽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 | |
|---|---|
| 1 정신으로 사귄 지 마흔 해이니 | 神交四十年 |
| 2 크게 웃었으며 또 좋아도 했네 | 大笑又堪憐 |
| | |
| 39 듣건대 그대 집에 보물 있으니 | 聞道君家寶 |
| 40 검약, 사랑, 나서지 않음이라오 | 儉慈不敢先 |

첫 구에서는 자신과 노자의 관계를 '40년 정신의 사귐'으로 밝혔다. '신교'는 시공간의 거리로 대면할 수 없는 경우의 사귐을, 40년은 단애의 노자 애호가 젊은 시절부터 시작했음을 말해준다. 중요한 것은 '交'자이다. 단애에게 노자는 '평교(平交)'의 대상이었으니, 숭봉의 대상이었던 단군과의 차이를 분명히 한 것이다. '대소(大笑)'는 노자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하사(下士)의 태도인데, 이는 거꾸로 도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의 태도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33] 단애에게 노자는 평생 사랑하고 좋아했던 인물이자 책이었던 셈이다. 마지막 두 구절은 69장에서 가져왔다.[34] 노자는 자기 보물로 '검(儉)'과 '자(慈)'와 '불감선(不敢

32) 『도덕경』은 이본에 따라 글자의 차이와 출입이 있고, 해석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의미 파악과 설명에 있어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글에서 『도덕경』 해석의 근거로 삼은 것은 김경수 역주, 『노자역주』(도서출판 문사철, 2015)이다. 인용 면수는 일일이 밝히지 않는다.

33) 『도덕경』 41장. "上士聞道, 勤而行之 ; 中士聞道, 若存若亡 ; 下士聞道, 大笑之. 不笑不足以爲道."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하사'를 자처하며 그 의미를 반어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

34) 『도덕경』 67장. "… 我有三寶, 持而保之. 一曰慈, 二曰儉, 三曰不敢爲天下先. 慈故能勇 ; 儉故能廣 ; 不敢爲天下先, 故能成器長. 今舍慈且勇 ; 舍儉且廣 ; 舍後且先 ; 死矣."

善)'을 내세웠는데, 단애는 이 세 항목 다섯 글자로 마지막 구절을 만들었다. 이는 당시 단애의 처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행동과 마음에 있어 부화함을 버리고, 모든 이를 사랑하여 분노와 원망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가급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 이는 단애가 노구로 옥중생활을 견디고, 뒷날을 도모하며, 끝내 살아나올 수 있었던 동력이었을지도 모른다. 세 덕목을 버리면 죽는다고 노자는 말했다.

| | |
|---|---|
| 3 일원(一元)이 이제 막 일어나리니 | 一元始起矣 |
| 4 만물은 있던 데로 돌아가리라 | 萬物終歸焉 |
| 5 기(氣)는 무에서 생겨 나오고 | 氣乃無生有 |
| 6 이(理)는 자연에 상응한다네 | 理應地法天 |

3-6구로, 시상 전체, 소급하면 당시 단애 사유의 전모를 추정할 수 있는 구절이다. 『도덕경』에서 가져온 구절도 있지만, 거리가 먼 글자들이 혼용되어 있어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원(元)·이(理)·기(氣) 세 글자는 『도덕경』에 나오지 않는다. 다소 위험을 무릅쓰고 조금 공격적인 해석을 시도해보겠다. '일원(一元)'은 용례 상 '태초', '수천 년에서 10만 년의 시간 단위', '천하'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를 모아 간추리면 '새로운 세상' 정도의 의미가 된다.[35] 이렇게 보면 3, 4구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으니(시작된다면), 만물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理)와 기(氣)는 송대 신유학에서 중시된 글자이다. '기'는 세상의 현상을 가리키는데, 그 작용의 핵심은 변화 즉 '생성과 소멸' 또는 '순환'이다.[36]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감이 도의 움직이다. 이는 3구 '만물종귀(萬物終歸)'의 현상이며,[37] 그것은 바로 6구에서 말한바 자연의 이치이다.[38] 이 네 구절은 자연의 질서

35) 만물의 탄생과 변화에 있어 '一'은 『도덕경』에서도 중요한 글자이다. 대표 사례는 41장의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이다. 단애가 이 구절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더 따져보아야 한다.

36) 『도덕경』 40장. "反者道之動 : 弱者道之用. 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

37) 『도덕경』에서 '復'(14회), '歸'(11회), '反'(4회) 자는 모두 자연의 순환 작용을 의미한다.

38) '地法天'은 『도덕경』 25장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에서 가져온 것이

를 말하고 있지만, 조금 확대해석하면, “변화는 자연의 질서이며 세상의 이법이다. 이 세상에 새로운 질서가 생기면 곧 원래의 상태를 회복할 것”이라는 의미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단애의 의도인지는 확언할 수 없지만, 시의 의미는 종종 시인의 의도와 계산을 넘어선다.

네 구절에 단애의 강렬한 바람이 담겨있다고 해도, 내용의 대개는 엄중한 시련을 견뎌내는 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13, 4구에서는 낮은 곳에 처하는 암소[牝]와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물을 들어 처신의 방법을 되새겼다.[39] 이런 마음가짐은 19-22구에도 보인다. 여기서도 몇 개 글자 외에는 모두 『도덕경』의 말들로 시구를 삼았다. 당시 단애가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모든 욕망을 비우고[虛] 고요하게 하기[靜], 직선의 힘을 눌러 굽히기[曲], 부드러움을 지켜[守柔] 힘을 비축하기, 당장의 상태에 불만을 품지 않기[知足]였다. 단애는 비우고 또 비웠으며, 고요함을 유지하여 정신의 소모를 최소화했다. 아래 구절은 그런 정황을 잘 보여준다.

| | |
|---|---|
| 19 마땅히 다 비우고 고요해야지 | 當致虛而靜 |
| 20 굽어야 온전하단 말이 있다네 | 古云曲則全 |
| 21 유약해야 고운 힘 앞으로 가고 | 守柔精力進 |
| 22 만족해야 복날이 이어진다네 | 知足福期延[40] |

그런가 하면 일제에 대한 충고, 아니면 치세의 대방을 담은 것으로 읽히는 구절도 있다.

| | |
|---|---|
| 27 전마 거둬 농업에 힘써야 하거늘 | 走馬宜爲糞 |

---

다. 운자를 고려하여 ‘天’으로 끝나는 구절을 사용한 것이다.

39) “牝貞常處下, 水性可攻堅.” 두 구절은 각각 61장의 “牝常以靜勝牡, 以靜爲下.”와 78장의 “天下莫柔弱於水, 而攻堅強者莫之能勝, 以其無以易之. 弱之勝強, 柔之勝剛, 天下莫不知, 莫能行.”에서 가져온 것이다. 『도덕경』 원문에 의거하면 13구의 ‘貞’은 ‘靜’이 되어야 한다. 착오인지 의도인지는 알 수 없다.

40) 차례대로 가져온 『도덕경』 원문은 다음과 같다. 16장. “致虛極, 守靜篤. 萬物並作, 吾以觀複. 夫物芸芸, 各復複歸其根. ….” ; 22장. “曲則全, 枉則直, 窪則盈, 敝則新, 少則得, 多則惑. ….”‘ 52장. “… 見小曰明, 守柔曰強. 用其光, 復歸其明, 無遺身殃 : 是爲襲常.” ; 44장. “… 故知足不辱, 知止不殆, 可以長久.”

28 용부는 자못 살생을 좋아하누나　　勇夫頗好田
29 용병에는 한 자를 물러야 하고　　用兵寧退尺
30 치국은 생선 삶듯 해야 하리라　　治國若烹鮮[41]

화제를 치국으로 옮겼는데, 또한 구절구절 모두 『도덕경』에서 가져왔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전마를 거두어 농업에 쓴다. 그런데 용부는 사냥만 좋아한다. '田'은 겨울 사냥인데, 전쟁과 살생의 의미를 지닌다. '용부'의 사전적 의미는 용맹한 장부이지만, 여기서는 '필부의 용맹'에 가깝다. 맹자는 양혜왕에게 자잘한 용기 즉 필부의 용맹을 경계했고, 한신도 항우를 가리켜 '필부의 용맹'으로 폄하했다.[42] 29구는 군사를 두어도 방어적으로 운용해야 함을, 30구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백성들의 삶을 빈번히 뒤흔들지 않아야 함을 말했다. 맥락상 '생선'은 국민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제의 군국주의가 극도로 팽창하였으며, 모든 인력과 물력을 총동원하여 전장으로 내몰던 삼엄한 전시체제였다. 위 네 구절은 그에 대한 분명한 부정과 비판의 뜻을 은미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니 모욕을 참으며 숨죽이고 죽음을 기다리던 시간이었다. 난세난국에 이런 청담(淸談)은 세상을 구제하지 못하고, 삶과 세상을 운명에 맡기는 것도 허망한 일이었다.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킬 방법은, 철저하게 숨기고 감춰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었다.[43] 40년 지기 노자는 소리 없이 그런 사실을 말해주었다. 단애는 노자와 대화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였고, 인정하고 자위했으며, 수모를 견디며 살아남는 방법을 몸으로 익혀갔다. 자연을 내세우는 오래된 고전 『도덕경』이 그 시절 폭력과 절망 속 단애에게 특별한 위안이 되었음은 의외의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넓은

41) 또한 차례대로 원문을 제시한다. 46장. "天下有道, 卻走馬以糞. 天下無道, 戎馬生於郊. …." ; 73장. "勇於敢則殺, 勇於不敢則活. …." ; 69장. "用兵有言, '吾不敢爲主, 而爲客 ; 不敢進寸, 而退尺.' …." ; 60장. "治大國, 若烹小鮮.…."

42) 『맹자』, 「양혜왕하」. "請無好小勇. 夫撫劍疾視曰, 彼惡敢當我哉. 此匹夫之勇, 敵一人者也. 王請大之!" ; 『사기』, 「회음후열전」. "項王喑噁叱吒, 千人皆廢. 然不能任屬賢將, 此特匹夫之勇耳."

43) 33-36구. "淸談非救策, 易學更奇緣. 懷玉嘗被褐, 閉門不用鍵."

시야와 깊은 해석의 논의가 필요하다. 단애와 비슷한 시기 옥고를 치른 함석헌(1901-1989)은 뒷날, “이 몇십 년의 더러운 정치 속에서도 내가 살아올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노자 · 장자와 대화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술회한 바 있는데,[44] 아울러 고려할 만하다.

## 5. 옥중시의 장소와 지리

이 절에서는 옥중시의 장소와 지리를 고찰한다. 문학과 역사는 3차원의 지리 공간에서 발생하고 소멸하고 자취를 남기며 기억된다. 3차원의 공간은 시간과 사연과 기억의 힘으로 4, 5차원의 세계가 된다. 단애가 체포되고, 수감되고, 절망하고, 재판받고, 한숨 쉬고, 시를 구상하고 적은 곳은 모두 한국학의 차원에서 문학의 장소이고 역사의 현장이다. 이를 되짚어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은 의미의 지리학, 또는 기억의 지리학을 구축하는 일이다. 단애는 어디서 체포되고, 어디서 조사받았으며, 어디서 시를 지었을까? 오늘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으며, 어떤 흔적이 남았고, 무엇이 기억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현장은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단애가 체포된 곳은 오늘날의 영안시(寧安市) 발해진(渤海鎭)이다. 발해진은 발해의 수도 상경성(上京城) 안의 행정 구역명이다. 1942년 당시 지명은 동경성(東京城)이었다.[45] 1920년대 조선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하였으며, 193, 40년대 목단강 일대 민족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민족운동의 두 중축은 발해농장과 대종교총본사였다.[46] 1940년 간행된『신단실기』등의 교적에 따르면 주소는 ‘목단강성 영안현 동경성 가동구(街東區) 제 19패(牌) 3호’였다. 당시 성내의 동남쪽(기차역에서 가까운)이 조선인 집거 구역이었는데, 총본사는 그 가운데 있었다.[47]

---

44) 김성수,『함석헌평전』, 삼인, 2001, 함석헌의 노장관에 대해서는 여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45) 지명의 변천에 대해서는 이승수 · 황인건,「포효하는 목단강의 서사지리」,『열상고전연구』65, 열상고전연구회, 2018. 참고

46) 황인건 · 이승수 · 강동우,「근대 발해(渤海) 조선인 마을의 형성 과정 연구」,『한국언어문화』70, 한국언어문화학회, 2019, 21-25면.

현재는 그 자리에 새 건물이 서서 ‘발해진조선족노인협회’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여기서 북쪽으로 100m 지점에 ‘발해진정부’ 청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단애의 아들 윤필한이 운영한 조일의원(朝日醫院)이 있었으며 해방 후 한글강습소로 이용된 곳이다.[48] 단애 등은 얼굴이 주머니로 씌워진 채 끌려갔다고 한다.

단애 등이 송치된 곳은 영안현 경무과였다. 영안은 1666년 영고탑장군아문(寧古塔將軍衙門)이 이전하면서 형성된, 흑룡강성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다. 1920년대에는 대종교총본사, 신민부 등이 있던 북만 이주 한인 사회의 중심지였다.[49] 1942,3년 영안현 경찰서 자리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힘든데, 다음 현지 향토사가의 증언이 눈에 띈다. “1932년 5월 5일, 일본은 헌병분견대(憲兵分遣隊), 선무대(宣撫隊), 경찰보안대대(警察保安大隊) 건립했다. 영안현정부를 영안현공서(寧安縣公署)로 고쳤는데, 건물이 들어선 곳은 영고탑장군아문 자리이다.”[50] 연재 다른 글에서는 그 위치를 현재의 후서가(後西街)와 서대가(西大街) 사이, 영안실험소학교(寧安實驗小學校) 동북쪽 인접 장소로 특정했다.[51] 현재 영안시의 서대가 동쪽 끝에 ‘영고탑장군아문 구지(舊址)’ 표석이 서 있다. 향토사가 마옥순(馬玉順, 1955~)[52] 선생은 서대가(西大家) 일대가 일제 강점기 공서들이 있던 자리라고 증언했다. 공서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으며, 당시 사진 1장이 전해질 뿐이다.[53]

옥중시와 관련하여 영안에서 확인할 장소는 1920-1926년 대종교총본사가 있던 남관(南關) 자리이다. 대종교 제2세 도사교 김교헌은

47) 이는 소설가 윤일산의 취재노트에 근거한 것이다. 이승수 · 황인건, 앞의 논문, 233면의 지도 참조.

48) 1931년생으로 대종학교와 한글강습소를 다닌 김두복 옹의 증언이다. (1. 27) 필자들은 2024년 1월 26일-28일 관련 지역을 답사했다. 김두복 옹에 대해서는 황인건 외, 앞의 논문 참조.

49) 서굉일, 앞의 논문, 170-177면.

50) 尹慶新 외,「被忽視的渤寧安縣公署」(2019.4.29.) (https://kknews.cc/ history/4jvrlo2.html)

51) 尹慶新 외,「寧古塔將軍衙門 (2019. 4. 15) (https://kknews.cc/history /6abyjxp.html)

52) 마옥순 선생은 교육자 출신으로, 흑룡강성에서 선정된 네 곳 마을 중 하나인 근로촌(勤勞村) 지지를 집필하였다. 근로촌은 와룡현(臥龍縣)에 있는 조선인 마을이다. 마 선생은 1월 28일 관련 장소를 안내하고 설명해주었다.

53) 사진은 위 윤경신의 글에 제시되었으며, 팔녀투강기념관에도 전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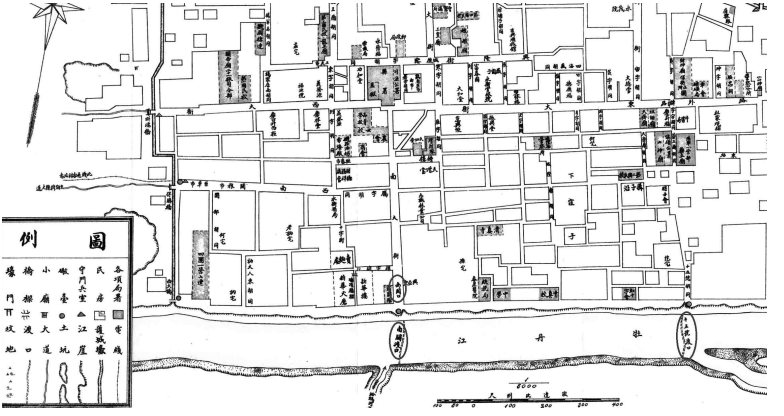
1920년 남관에 총본사를 두었다가 1923년 여기서 세상을 뜬다. 단애는 1923년 길림 화전현(樺甸縣)에서 김교헌의 유명을 받들어 제3세 도사교에 취임했고. 1924년 3월 16일 남관에서 의회를 소집하고 홍범규제(弘範規制)를 개정했다. 이후 1926년의 포교 금지령으로 총본사는 1927년 밀산(密山) 당벽진(當壁鎭)으로 이전한다. 남관은 7년 대종교 총본사가 있었으며, 여기를 중심으로 대한군정서와 대한독립군단, 신민부 등이 활동하던 곳이다. 이 남관 일대의 지리 의미는 대종교와 단애에 국한되지 않는다.

* 오늘날 영안시의 전자지도. 하마하 북쪽에 영안시도서관이 있고, 그 북쪽이 남관로이다. 위 「영안현성시도」의 내용과 부합한다.

남관의 위치를 비정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 고증이 필요하다. 현재 영안시의 서대가 동단에서 남쪽으로 뻗은 길을 '남관로'라 한다. 그 남쪽 강 연안에 영안시 도서관이 있다. 1664년에서 1681년까지 여기서 유배생활을 한 오진신(吳振臣)은, 당시 영고탑성은 내성(둘레 2리 남짓)과 외성(둘레 8리)으로 구성되었는데, 외성의 남문은 목단강에 면해 있다는 기록을 남겼다.[54] '남관'이라는 지명은 이 외성의 남문에서 유래한다. 1924년 간행 『영안현지』의 「영안현성시도」에는 목단강 남쪽의

54) 「寧古塔紀略」의 기록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승수, 앞의 논문(2017), 100면 참조.

지류 하마하(哈螞河子, 지금도 같은 이름) 맞은편 강 연안에 '남관도구(南關渡口)'와 '남관구(南關口)'가 표기되어 있다. 이를 오늘의 지리에 대응시키면, 현재의 영안시도서관이 남관구에 해당한다. 마옥순 선생은 도서관 건립 공사 당시 성문 유적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1920년대 영안 한인 사회의 지도자들이 모여 사업을 도모한 남관은 지금의 영안시도서관 부근이다.



* 「영안현성시도」(부분). 왼쪽의 동그라미 위에서부터 '남관구(南關口)와 남관도구(南關渡口), 대안에 하마하(蛤螞河子). 그 북쪽이 현재의 서대가 동단. 오른쪽 동그라미는 십오호도구(十五號渡口)인데 오늘날 그 자리에 표석이 서 있다.

단애 등은 1943년 3월 목단강 액하감옥으로 옮겨져, 감옥과 목단강 경찰공서를 오가며 조사를 받는다. 경찰공서 건물은 해방 이후 학교와 모형협회(模型協會) 등의 건물로 활용되었다. 동서로 100m 가량 뻗은 붉은 벽돌 一 자 건물 외부는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 2016년 시급 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었다. 목단강 기차역에서 정북향 1km 지점에 있으며, 주소는 '목단강시 애민구(愛民區) 동효운가(東曉雲街) 5호(號)'이다. 지하는 물감옥이었으며, 근래까지 고문 도구의 일부가 남아있었다고 한다.[55] 문을 폐쇄했지만, 북쪽 인근에 아직 철거되지 않은 인가

55) 「牡丹江警察公署旧址"被挂牌保护」(https://tieba.baidu.com/p/4330972120)

가 몇 채 남아있어 북면 공터에 진입할 수 있다. 건물의 문은 잠겨있어 안으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 목단강시 경찰공서 옛 건물의 북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소는, 대종교 지도자들이 갇혀 있다가 순교하거나 풀려난 액하감옥(掖河監獄)이다. 액하감옥은 뒤에 철령하감옥(鐵嶺河監獄)으로 이름이 바뀌어 10여 년 전까지도 감옥으로 이용되었다. 철령하는 목단강시 동북쪽 인근에 흐르는 목단강의 지류이다. '액하'는 철령하의 옛 이름으로, 박물관에 전시된 193,40년대 지도에는 '애하(愛河)'로도 표기되었다. 현재 중국의 사이트에서는 액하감옥이든 철령하감옥이든 검색되지 않는다.[56]

56) 중국 외의 인터넷 정보에 의하면 '철령하감옥'은 1990년 파룬궁 관련자들의 수감 장소로 이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검색 자체가 금지되었다고 한다. 사실 확인을 요한다.

* 액하감옥 전경 일부. 현재는 출입이 통제되어 있고 좌측 벽면에 표지판(철령하감옥)이 있다.

'액하'라는 명칭은 위만 시절 일제에 의해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57] 이 감옥은 2015년 7월 '侵華日軍罪證遺址'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알리는 표지가 서벽에 붙어있다. 이후로 몇몇 언론사에서 이곳을 취재했으며, 국내의 독립운동사 관련 사이트에도 올라와 있어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목단강 기차역 기준 동쪽 5.5km 지점, '木都水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데, 담장이 높고 문이 잠겨있어 당국의 협조 없이는 진입할 수 없다.

57) 吉田英司 · 吉田寬治 편, 『満州掖河: 一九四五年八月十五日』 (1987,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 따르면 목단강 일대를 掖河로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는 掖河가 목단강의 지류처럼 표시된 지도도 실려 있다. 지명의 연원과 의미에 대해서는 상세한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2023년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일본 헌병대 출신 미노루 니시타니(西谷稔)의 참회 일기(1957)가 번역되어 '我的自傳'이란 제목으로 분할 연재되었는데, 여기에도 그가 액하감옥에서 저지른 죄상이 소개되어 있다.「第四章 日本宪兵在亚州的滔天罪行」(https://www.yancloud.red/Portal/Book/chapter/bookid/418/chapterid/14729.html) 이 글은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에『私は中国で何をしたか : 中国侵略の罪行と認罪の手記』(51면, 2001년)이란 제목으로 소장되어 있다.

* 『만주액하(滿洲掖河)』에 실린 지도, 동그라미 안에 '掖河' 지명 표시가 선명하다. 감옥의 위치는 대략의 지점을 설정한 것이다.

## 6. 결어

국권 상실에서 분단 · 전쟁 · 냉전을 거쳐 오늘에 이르는 한국 근현대사를 되짚어보는 것은 그 자체로 마음 아픈 일이다. 이 여러 겹 모순의 역사를 응시하고 있으면, 역사가 어느새 거꾸로 나를 응시한다. 그리고 거대한 괴수가 되어 나를 덮치고 삼킨다. 나는 괴수의 정체를 알기 위해 안간힘 쓰지만 그 뱃속에서 천천히 소화되어 간다. 그 과정에서 깨닫는다. 나는 어떻게 해도 이 역사의 밖으로 한 걸음도 벗어날 수 없으며, 나의 삶이 거대한 상실의 공백 위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고통이 몰려온다. 평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외면과 망각, 발전과 풍요라는 진통제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된다.

지금까지 단애 윤세복이 남긴 몇 수의 시, 이 시가 지어진 장소를 살펴보았다. 이 시들은 미적 가치가 넘치는 예술작품인가? 단애가 체험한 두어 해와 몇몇 장소는 우리의 역사이며 지리인가? 몇몇 시구에 주석을 달고, 배경을 밝히며 지시 대상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미적 쾌감을 선사하는가? 옛날 경찰서와 감옥 터를 고증하고, 어스름한 저녁 그 주위를 배회하며 옛일을 떠올리는 행위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가? 이 과정을 한 편의 글로 작성한 결과에 과연 무슨 의미와 효용이 있는가? 답변하기 어렵다. 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고통', 그 고통의 체감이다.

역사는 사라진 광대한 바다이다. 문학은 그 세계에 닿을 수 있는 작은 나룻배이다. 우리는 때로 이 나룻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간다. 이 글은 단애가 남긴 몇 수의 시를 나룻배 삼아, 1943,4년 지금의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일대에서 펼쳐진 역사의 바다를 여행하고, 그 경과와 감회를 정리한 보고서이다. 그 시절 그곳에서는 인류가 일으킨 엄청난 재난이 있었고, 생각만 해도 치욕스러운 폭력이 자행되었다. 단애의 시는 재난과 폭력에 대한 증언이며 수모와 고통의 흔적이다. 이 보고서에는 조심스럽게 되 겪은 고통이 담겨있다. 보고서의 목적은 그 고통의 느낌을 일부나마 가둬 보존하는 것이다. 다시는 누구라도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단애가 액하감옥에 갇혀있고 그 동료들이 죽어가던 시기, 이육사(1904-1944.1.16.)는 북경의 일본영사관 감옥에서, 윤동주(1917-1945.2.16.)는 후쿠오카의 감옥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며 고문받다가 죽었다. 그 시절에는 이런 고통이 우리의 일상이었다. 이 고통스러운 일상은 언제라도 다시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다.

[Abstract]

# A Study on Danae Yun Se-bok's Poetry Written in Prison

Lee, Seungsu(Hanyang University)
Lee, Yonggeun(Heilongjiang University)
Gang, Dong-u(Catholic Kwandong University)

This article explores the significance and value of poetry written by Danae Yun Se-bok (1881-1960) in Mudanjiang Prison between 1943 and 1944, and explains the place meaning of this poetry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studies. In 1942, Yun Se-bok was arrested along with Daejonggyo leaders and subjected to torture and interrogation, and in the process, 10 people died in prison. His prison works contained national consciousness despite suffering and political oppression, and especially expressed personal agony and poems mourning dead comrades. In this article, we examine 10 Chinese poems mourning a friend who died in prison, 36 poems of sijo(「福堂抒情」), a Chinese poem with 5 words and 20 verses(「讀老漫吟」), which contains the feeling of relieving pain while reading "Tao Te Ching".

These poems show the shame and agony of a human being whose sovereignty as well as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life were seriously damaged, the daily phases and psychological waves behind the national movement in the Mudanjiang area at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rule, and serve as a place for Korean literature or a scene in Korean history that depicts some dark moments. Demand that places be illuminated. The

discussion focused on historical research on the background and content of creation rather than analysis of individual works, and examined the location and geography of prison poetry. As a result of exploring these places, I was able to see that both these places and geography are places of literature and history in the context of Korean studies.

**Key words :** Yun Se-bok, Daejonggyo, Im-o-Kyo-byun, Bok-dang-Seo-jeong(福堂抒情), Dok-Ro-Man-Eum (讀老漫吟), Aek-ha-gam-ok (掖河監獄)

## [참고문헌]

■ 기본자료

대종교종경종사편수위원회,『大倧敎重光六十年史』, 대종교총본사, 1971.

대종교총본사,『임오십현순교실록』, 대종교총본사, 1971.

,『修眞三法會通』, 대종교총본사(동경성), 1942.

,『三一神誥』, 대종교총본사(동경성), 1942.

,『補訂 倧門指南』, 대종교총본사(동경성), 1942.

吉田英司 · 吉田寬治 編,『滿州掖河: 一九四五年八月十五日』, 1987,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 단행본, 논문 및 기타자료

강대민,「白山 安熙濟의 大東靑年團運動」,『경성대학교 논문집』, 1997.

김경수 역주,『노자역주』, 도서출판문사철, 2015.

김동환 외,『임오교변』, 선인, 2022.

김동환,「육당 최남선과 대종교」,『국학연구』10, 2005.

김성수,『함석헌평전』, 삼인, 2001.

박영석,「大倧敎의 民族意識과 抗日民族獨立運動 : 壬午敎變을 中心으로」,『건대사학』6, 건국대 사학회, 1982.

박 환,『나철; 김교헌; 윤세복 : 민족을 발견하고 나라를 찾자』, 동아일보사, 1992

백산 안희제 선생 순국 70주년 추모위원회,『백산 안희제의 생애와 민족운동』, 선인문화사, 2013.

서굉일,「단애 윤세복과 독립운동」,『경기사학』7, 경기사학회, 2003.

신운용,「대종교세력의 형성과 그 의미」, 2015.

우은진,「1930년대 '전통' 인식과 시조담론」,『한국문학논총』63, 한국문학회, 2013.

尹慶新 외,「被炸毁的偽寧安縣公署」(2019.4.29.) (https://kknews.cc/history/4jvrlo2.html)

尹慶新 외,「寧古塔將軍衙門 (2019. 4. 15) (https://kknews.cc/history/6abyjxp.html)

이동언,「임오교변 발단 배경과 일제의 탄압」,『국학연구』26, 국학연구소, 2022.

,『독립운동 자금의 젖줄 안희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이숙화,「1930년대 만주지역 大倧敎 재건과 민족운동」,『고조선단군학』37, 고조선단군학회, 2017.

이승수 · 황인건,「포효하는 목단강의 서사지리」,『열상고전연구』65, 열상고전연구회, 2018.

장세윤,「1942년 일제의 대종교 탄압과 치안유지법」,『국학연구』26, 국학연구소,

2022.
정영훈, 「임오교변과 대종교」, 『국학연구』 26, 국학연구소, 2022.
조선총독부, 「國境地方視察復命書」, 『백산학보』 9, 1970.
조준희, 「단애 윤세복의 민족학교 설립 일고찰」, 『선도문화』 8,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2010.
조준희 · 유영인 편, 『대종교원전자료집 백봉전집』, 역사공간, 2017.
황인건 · 이승수 · 강동우, 「근대 발해(渤海) 조선인 마을의 형성 과정 연구」, 『한국언어문화』 70, 한국언어문화학회, 2019.
牡丹江警察公署旧址 被挂牌保护」 (https://tieba.baidu.com/p/4330972120)
https://www.yancloud.red/Portal/Book/chapter/bookid/418/chapterid/14729.html

투고일: 2024.07.14 심사일: 2024.08.10 게재확정일: 2024.08.15